

JANUARY

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CHANGWON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바다무지개

2015년 1월호



힘들고 어려웠던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보내 주신 응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Happy 2015”를 경영목표로 정하고
전 직원이 화합하고 진보하여 행복한 한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긍정의 힘과 갈망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며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을미년(乙未年)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더욱 크게 발전하시며,
기쁜 일만 있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01월 01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센터장 이명희 드림

센터를 사랑하는 자원봉사자들의 2014년을 센터에서 느낀점과 2015년 자원봉사에 임하는 각오~!

항상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우수봉사자표창장에 누가지 되지 않게 열심히하고, 다가오는 2015년에도 한국에 와서 일에 지쳐 힘들어하거나 타국에서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친절하고 밝은 미소로 대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은빈 봉사자-

2014년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 자신에 힐링이 되었던 좋은시간이었습니다

2015년은 직장을 옮겨서 일요일에도 일해야되서 나가기 힘든것 같아 늘 그리울것 같고 시간이 나면 참석하고싶습니다



-이진상 봉사자-

9월달의 첫 센터 방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봉사활동을 위해 센터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한국인들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것에 당황스럽고 얼떨떨 했습니다. 한국어 교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 먼저 인사하고 다가와주는 외국인근로자분들과 다 같이 어울려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친구들 덕분에 일요일에 센터에 오는것이 기다려지고 즐거웠습니다. 센터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거였지만 외국인근로자분들과 봉사자친구들과 같이 있으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즐겁운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센터에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많이 웃었습니다. 2015년에도 일요일 아침에는 당연한 듯이 센터에 갈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센터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송 봉사자-

올해 처음으로 알게되어 가끔이나마 함께하면서 많은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자주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윤수 봉사자-



2014 : 봉사활동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고싶어하는 외국인들의 한주 한주 성장하는모습을 보고 뿌듯했습니다.

2015 : 2014년에는 활동을 비교적 많이 못했는데, 2015년에는 나 또한 외국인과의 교류를 통해 외국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수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노력하고 더불어, 한국문화와 언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할수있는 봉사지원을 하고싶습니다

-심준우 봉사자-

짧은 기간이었지만 매주 일요일 수업을 하면서 시간이 빠리지나갔네요 많은걸 가르쳐줬지만 저두 외국인분들한테 많은걸 배운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 2015년에도 항상 에너지 넘치는 즐거운 센터 되기를바라면서 2년뒤에도 좋은인연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부족한면을 채우고 오겠습니다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직원및 봉사자 감사님들 사랑합니다♥

-주소향 봉사자-

2014년 창원외국인력센터에서 느낀점은 일단 센터장님의 비롯한 센터선생님들이 친절히 잘해주시구요 그보답에 센터에 열심히 봉사할수 있었는데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러 오는 봉사자들도 최선을다해 해주시구요 2014년에는 도움도주긴했지만 많이배운거같아요 외국인라 센터직원분들과 봉사자가 하나가 된거같습니다.

2015년에는 2014년보다 더열심히 봉사라고생각안하고 일터라고 생각하고 시켜주는거 열심히 할거구요 봉사자들도 꾸준히 나올수있게하고 더 많은봉사자 양성을 할수 있게 제가 최선을다해 보겠고 행복하게 더많이 웃을수있는날도 만들겠습니다.

-마성희 봉사자-



우연한 기회로 찾아오게 된 센터에서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갖게되서 영광입니다. 외국분들과 얘기할 기회가 자주 없는데 좋은 기회가 되는 거 같습니다. 연말때부터 함께해서 아직 모르는게 많습니다. 9/1년생 양피로써 음미년에도 다 같이 힘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문규 봉사자-

이번에 고3 수험생이었던 저는일년내내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짧은 시간에 창원외국인력 지원센터에서 많은 것을배우고 느꼈습니다. 우선 처음 한국어교실 보조교사를할 때 열심히 김은희 선생님 수업을 학생들과 함께듣으며 미래의 제모습을 상상했을때 그 설렘은 여전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저

를 선생님이라 불러주시며 조금은 어설픈 한글 문장을 저에게 내밀었던 한국어 초급반 학생들의 모습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수능 이후에 마지막 수료식까지 지켜보니 정말뿌듯했고 저의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셨고 제가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베트남어도 근로자분들께서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년에도 올해처럼 센터에서 한국어에 대한 열정을 느낄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역시 제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외국인 근로자 분들을위해 열심히 봉사할것이며 몇몇 사람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오해로 그분들이 차별대우 받고 모욕받는 사회가 우리 센터를 통해 바뀐다면합니다. 나

아가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고국에 돌아갔을때 한국은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노운주 봉사자-



2014년 동안 느낀 건,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원래 성격이 고집이 센 터라 제 주장만 중한 줄 알고 고집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해주게 된 걸 몸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주변사람들과 싸우는 횟수도 적어지고요. 제게 장래희망에 관한 직접적 도움도 크지만 내면적으로도 많이 성숙해지게 만들어주네요. 전 그저 이 곳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2015년의 각오는 2014년보다 더 열심히 뛰겠다는 것이죠! 저도 다른 분들처럼 아침에 좀 더 일찍 와서 수업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주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좀처럼 몸에 잘 안 익지만 제가 제일 먼저 와있어야 하는데 자꾸 제 시간에 맞춰 오는 게 죄송하더라고요! 또한 더 다양한 활동과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젠 공부도 효율적으로 해서 시험기간에도 최대한 안 빠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천혜정 봉사자-

12월 행사 (하반기 수료식)



12월 28일(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하반기 수료식 및 KOREA DREAM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5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서 행사를 빛내주셨습니다. ^o^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료식과 수료증 수여, 컴썩썩앙 대회 CFC 사진첩 감상,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 노래 자랑 대회, 행운상 추첨 등 다양한 수료식 행사와 함께 외국 인근로자분들께서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한국에서의 생활과 학습에 대한 축하를 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피곤하고 바쁜 와중에도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를 찾아와 한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에 열정을 발휘하는 외국인 근로자 분들을 보며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도 더욱 열심히 소중한 분들을 지원하고 함께하는 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12월 행사 (하반기 수료식)

환하게 웃음을 지으며 지난 하반기 동안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함께” 해주신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자랑스런 모습들 환한 웃음속에 같이 웃음이 지어지네요 ^^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의와 열정, 그리고 한국에서 당당하게 자리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외국인 근로자분들께 학사모와 수료증은 그 이상의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12월 행사 (KOREA DREAM 한마당)



그동안 쌓아왔던 한국어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해주신 외국인
근로자분들 한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내용도 정말 알았습니다.
뛰어난 노래실력 또한
겸비하셔서 숨은 끼를 발휘하며
행사를 더욱 뜨겁게
만들어주시네요 @@

심사위원님들의 엄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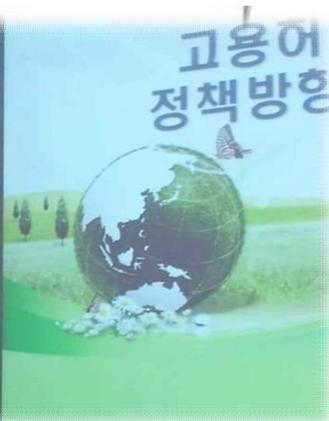
말하기대회 우승은 “인터넷과 편리한
우리생활” 에 대해 발표한 우즈벡의
박티야르, 한국가요대회 우승은
“사랑하고싶어” 를 부른 위토요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짹!짹!짹!



직원 워크샵 참석

대전 KT연수원에서 실시한 외국인력지원센터
워크샵이 열렸어요~
이번 워크샵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셔서
외국인력 지원을 위한 지식나눔과 나아갈 방향에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고용허가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지식을 나눴중이에요~
개인정보의 이해 및 관리,
청결윤리 교육, 상담유형의 이해
및 유형원칙, 행복강연 및
웃음치료와 같은 다양한 수업들로
많은 지식을 쌓을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듣고계신
외국인력지원센터 직원분들
멋져요^^ 중간에 눈을 감고
계신분이 보이는 건 저의
착각이겠죠 **



강사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실시 (교육문화팀)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
아낌없이 소중한 재능을 기부해주시는
우리 강사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모두들 훈훈한 외모를 자랑하셔서
눈이 즐겁네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강사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의견과 생각을 듣고,
나누며, 센터가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센터 직원과 쌤들간의 친목도 더욱 깊어져 사랑이
넘치는 센터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네요 ^__^

WEDUDAY학습의 날

2014년의 마지막 WEDUDAY는
 참 뜻깊은 시간이 되었어요.
 센터장님께서 새로운 경영목표와
 취업규칙을 설명하시며 다가오는
 2015년 더욱 단결되고 체계적인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HAPPY 2015
 “행복한 2015년”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마다 깊은 뜻을
 담아주셔서 목표를 정해주셔서
 더욱 알찬 새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같이 화이팅!!

2014 종무식

12월 31일 종무식 행사를 실시한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 했던
2014년을 뒤돌아보며, 그간의 수고와
노력들을 서로 토닥이고 안아주는 시
간들을 통해, 화합과 단결, 행복이
넘치는 2015년의 창원외국인력지
원센터가 될 것 같아요 ^^



센터장님의 빨간 얼굴이 보이네요 **
2014년 3월 새로 부임하셔서 센터를
한층 더 발전하게 해주신
고마우신 센터장님!! 최고~!

다가오는 새 해
이 다짐 그대로
하이팅~!



CFC 우수상담사례

상담개요

사업장에서 특근 거부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사업장에서는 특근수당을 2013년 200%지급되었던 부분을 2014년부터 150%지급하게 되었음을 근로자들에게 안내 하였다.

이에 스리랑카 근로자들은 200%지급 해주지 않을 경우 특근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사용자는 특근을 하지 않을 경우 특근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하길 희망 하였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200%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서명도 하지 않고 특근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내방한 스리랑카근로자는 현재 사업장에 12명의 스리랑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1~2 명이 선동하여 특근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본인이 특근을 하고 싶어도 특근을 하게 될 경우 보복이 두려워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2015.1월에 재고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특근까지 거부하게 되면 사업주가 재고용도 해주지 않을까하는 고충도 가지고 있다.

- 현재 사업장에서는 법적인 기준안에서 휴일 근로 시 주휴 수당을 별도로 지급의 150%가산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불만을 제기 하였고 200%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특근 거부 및 다른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들 까지 선동하여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특근의 선택여부는 자유이며 근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단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사업주는 현재 3시간 근무 후 10분 휴식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기준인 4시간 근로 후 30분 휴식으로 중간 휴식 제도 또한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사용자에게 단체행동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 1~2명의 선동과 강압 때문임을 알렸고 특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입장 또한 전달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 개별 면담을 통해 근로자들의 의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명의 근로자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더 큰 피해는 사업장에서 보게 된다. 새로운 외국인 채용, 관리, 부분 등 2차 피해를 낳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 하여 근로자들과 관계회복 할 수 있도록 요청 하였다.
- 2014.3.9. 일 확인결과 모든 근로자는 현재 특근근무를 하고 있었다.

2. 상담 포인트

같은 국적의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 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1~2명이 선동하여 단체행동을 조장한다. 같이 행동하지 않을 경우 피해나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행동을 같이 하게 된다. 이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개별 면담 및 상황 확인이 필요 하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헌법 제33조 제1항

-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CFC 1월 행사 안내

1월 2주

- ▶ 방학특강 실시!!
- 기초반 / TOPIK 시험 대비반 (매주 일요일 10:00~15:00)
- ▶ 찾아가는 이동상담
-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1월 3주

- ▶ 무료진료(14:00~16:00)
- 센터상담실
- ▶ 찾아가는 이동상담
-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고성군 동해면

1월 4주

- ▶ 제38회 TOPIK 시험실시 2015.01.18
- ▶ 2014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분 정산 보고서 제출

다섯째주

- ▶ 찾아가는 이동상담
-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CFC와 함께해요 ☺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를 사랑해주실 줄

비가 된 분들이라면 누구나 OK~! 망설이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원봉사
자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mail: mfwc@hanmail.net ☎ 055-253-5270~4

홈페이지주소: www.mfwc.or.kr/



070-4481-6703



070-4481-6702



070-4481-6701



070-4481-6704



070-4481-6705



070-4481-6706

나라별 상담전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

< 후원 계좌 >

경남은행 513-07-0195121

예금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